

문형(Equiseti Herba)

- 기원 : 속새과 식물인 쇠뜨기 *Equisetum arvense* L.의 전초를 말린 것이다.
- 성미 : 맛은 쓰고 성질은 서늘하다.
- 성상 : 햇볕이 잘 드는 풀밭에서 흔히 자라는 다년초로서 지하경이 길게 뻗으며 번식한다. 생식경(生殖莖)은 이른봄에 나와서 끝에 뱀대加里 같은 포자낭수(孢子囊穗)를 형성하고 마디에 비늘같은 잎이 윤생하며 가지가 없다. 영양경(營養莖)은 뒤늦게 나오고 처음에는 비스듬히 자라다가 지상에서는 곧추서며 높이 30-40cm로서 속이 비어 있고 겉에 능선이 있으며 마디에는 가지와 비늘 같은 잎이 윤생한다. 잎의 수는 원줄기의 능선수와 같고 가지에는 4개의 능선이 있으며 윤생엽도 4개이다. 포자낭수는 긴 타원형이고 육각형의 포자엽이 서로 밀착하여 거북등처럼 되며 안쪽에는 각각 7개 내외의 포자낭이 달린다. 포자에는 각각 4개씩의 탄사(彈絲)가 있어 마르고 습한데 따라 신축운동으로 포자를 산포시킨다. 쇠뜨기란 소가 뜯는 풀이란 뜻이며 소가 잘 먹는다.
- 성분 : 쇠뜨기 Saponin, Carotene
- 약리 작용 및 용도 : 을 내리고 혈열(血熱)을 없애며 기침을 멎게 하고 소변이 잘 나오게 한다. 약리 실험에서 이뇨 작용 · 지혈 작용 · 소염 작용 등이 밝혀졌다. 토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출혈, 기침이 나고 숨이 찬 데, 임증(淋證) 등에 쓴다. 또한 만성 심부전 때 강심약(強心藥)과 함께 쓰며 만성 기관지염, 만 · 급성 납중독의 예방과 치료에도 쓴다.

